



Ⅰ 금주의 성화

모세

피에타, 다비드와 함께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으로 손꼽히는 모세상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조각상 아래쪽에서 위로 시선이 향하고 있어 고귀하고 사려 깊은 인상을 준다. 뿔이 달린 모습은 희랍어 구약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광채’가 ‘뿔’로 오역되는 바람에 생겨난 잘못된 표현이다(출애굽기 43.29-30 참조). 오른팔에 십계명 판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예언자이며 그리스도의 예고자인 모세의 위엄이 잘 드러나고 있다.

미켈란젤로
1515년, 대리석 조각.
로마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

† 오늘의 전례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마르 7,1-8,14-15,21-23 참조)

우리는 가끔 형식에 얽매어 정작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성사보기 귀찮아서 해치워 버리듯 끝내고 나오는 미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보기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냄새나는 쓰레기통이 될 수도, 향기 나는 꽃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1독서 신명 4,1-2,6-8

제2독서 야고 1,17-18,21-22,27

복음 마르 7,1-8,14-15,21-23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1,080° 회전



허남진 마누엘 신부 | 유천성당 주임

올 여름은 예년과는 달리 무척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선전은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겨 준 도마의 양학선 선수의 선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만이 구사할 수 있는 회전 기술로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은 온 국민의 마음에 각인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속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 호기심에서 바라보는 군중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첫 부류의 사람들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같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정 깨끗하려면 겉만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당신의 말씀을 잘 새겨 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제자들에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이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의 내면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청해 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 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 키워보지 않은 사제의 자녀교육 단상

허무하지 않은 성공을 가르치자!

전재현 베네딕토 신부 | 해외연학

꿈을 꾸는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생기가 있습니다. 꿈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고, 잠재되어 있던 힘과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꿈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훨씬 더 풍부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더욱 생기 있고 생명력 넘치는 삶,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꿈꾸게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어떤 차원의 것인지를 분별하고 의미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성취한 꿈이 허무한 성공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목표인 청소년은 정작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입학해서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취업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졸 백수는 자꾸 늘

어만 갑니다. 졸업 후 돈을 많이 벌어 자녀들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고 갈라진다면 물질적 성공은 허무일 뿐이겠지요.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신앙은 확고한 복음적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에 바탕을 두고 꿈을 꾸면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고, 지위나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물질적 성공이 뒤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표는 사랑이신 당신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창조 의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인간이 되는 것이 곧 인간의 자아실현이요, 가장 큰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온갖 잡다한 지식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지 말고, 신앙의 진리를 깨쳐 어떻게 살아갈지를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백구**

■ 금주의 성인 성 그레고리오



성 대 그레고리오 1세, 교황, 교회 학자 (9월 3일)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 암브로시오, 성 예로니모와 함께 서방교회의 4대 교회 학자 가운데 한 분이시며, 교황 레오 1세와 더불어 '대교황'으로 불린다. 그레고리오 성인께서는 5년간 로마시 총독으로 있다가 베네딕도회의 수도자가 되어 로마와 시칠리아에 7개의 수도회를 세웠으며 수도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590년)에 추대되었다. 800여 통의 서한들 속에 담긴 성인의 사상은 서방교회의 전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유럽의 역사에도 큰 발자국을 남겼다. 성인께서는 교황권을 확립하고 미사 전례를 개혁하셨을 뿐 아니라 그레고리오 성가를 편찬하시고 많은 뛰어난 설교를 남기셨다.

주일 말씀으로 배우는 교리 : 연중 제22주일

하느님의 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청소년국장

주일 말씀

_ 율법 준수에 관한 문제의 핵심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조상들의 전통”으로 육신의 건강을 위한 율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전통과 율법의 내적인 의미를 살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율법이 가리키는 그 정신을 이해하지 않고 율법 준수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2독서의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야고 2,12-13)

말씀과 교리

_ 하느님의 계명이 주는 자유

오늘 미사의 주제는 하느님의 법입니다. 하느님의 법은 항상 옳바르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하느님의 법과 조상의 전통이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즉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규정만을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손이나 그릇, 잔 등을 씻는 것만을 강요하였지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이 가리키는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하시면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하신 말씀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되 율법을 주신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법은 인간의 권리를 해치는 탐욕과 거짓, 도둑질, 살인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느님의 법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여 타인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주신 법은 인간 상호간의 책임과 자비, 정직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구현으로 온갖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인간의 품위와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계명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막 10,17**

묵상해 봅시다.

· 눈이 멀어 사리 판단 없이 덮어놓고 하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켜 ‘맹목적’(盲目的)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생활 또는 맹목적인 신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눔과 섬김의 현장 - 월명성모의 집 편

월명의 하루

월명성모의 집 | 윤미애(요양보호사)

월명의 아침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천국이다. 어디선가 갑자기 부산한 다툼의 소리가 들려 뛰어가 보니 한 어르신께서 당신의 이불을 가져갔다고 소리를 치신다. 때론 철부지 어린아이의 투정인 듯 한 어르신들의 실랑이, 그 또한 삶의 애정이 아닐까 싶다. 어디서나 흑과 백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듯이 감정적인 어르신이 있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갈하게 이불을 정리하시는 태연한 한 어르신이 있다. 빼앗긴 이불 대신 더 좋은 이불을 드렸더니 성난 코끼리처럼 분을 삼키지 못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시는 말씀 “아이고~ 예수님...” 포근하고 따스한 그녀의 젊은 날 같은 소파에 앉으시며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를 숨 쉴 틈 없이 쏟아 내신다. “그래서 속이 시원하게 풀리길라도 하신다면 얼마든지 쏟아내 놓으세요. 넘치는 한 숨 이라도 큰 그릇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넘치도록 받겠습니다.” 하니 곱게도 주름진 웃음을 보내신다. 순간의 짧은 기억마저도 먼 산 아지랑이처럼 가물가물, 돌아서면 잊으실 일들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셨나보다.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어르신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또 그런다며 타박 하신다.

어르신들은 애기와 같다. 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어 최고의 명약을 처방했다. “자 어르신, 우리 노래 한 번 해봐요. 가로등도 졸고 있~는...” 이 노래는 며칠 전 어르신이 내게 가르쳐 주신 노래다. 나는 노래를 잘 못해서 어르신이 부르는 대로 쪽지에 적어서 따라 불렀다. 당신이 가시며 웃



으신다. “오~ 예! 내일은 100점 맛도록 할게요. 이제 어르신은 선생님이요 저는 학생이에요.” 언제 그랬냐며 여우비 지나가 듯 조금 전의 다툼 기억은 까마득히 잊으시고 입가에 미소가 조롱조롱 달렸다.

우리가 어르신을 위해 있다지만 문득 어르신들께 인생의 꽃과 그 속에 피어오르는 향기로움을 느낄 때면 오히려 우리가 받는 고마움과 사랑이 더 크다는 생각에 더 더욱 감사하다. 부족한 우리들이 예쁜 마음을 가진 어르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품속이라 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빛내는 황혼의 붉은 기운이 모든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인 냥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주님의 숨결 속에 저물어 간다. 새로운 내일의 삶이 밝아오는 아침까지 눈을 뜰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며, 어르신들과의 하루를 마음속에 밋그림 하나 그려본다.

월명성모의 집 링크



■ 대구가톨릭수의사회 창립총회



대구가톨릭수의사회(담당사제:박강수 로무알도)가 8월 26일(일) 칠곡가톨릭병원 내 성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대구가톨릭수의사회는 가톨릭적인 동물 진료 윤리를 준수하고 나아가 사랑과 친절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화와 교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 가톨릭 녹색환경학교 1기 개강



가톨릭 녹색환경학교 1기가 8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 황종렬 박사의 「생태영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4주간의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가톨릭 녹색환경학교는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생태분과 주관으로 자연을 하느님 창조 질서로 되돌리는 방법을 신앙 안에서 찾아보고자 마련되었다.

교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9월 3일 월요일은

(故)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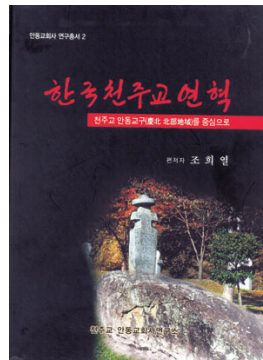
루도비코 신부님

(故)김규태

디모테오 신부님

8주기입니다.

■ 안동교구 40주년 기념 연혁 발간



지난 2009년 안동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아 설립된 안동교회사연구소가 최근 총서 제2권 ‘한국천주교 연혁-천주교 안동교구를 중심으로’를 출간했다. 이번 총서는 한국 천주교회사 연혁 뿐 아니라 세계 교회사 연혁, 안동 교회사 연혁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도서출판 동명 펴냄, 가격: 3만 5천 원)

기사 및 사진제공: 매일신문

자기편의즉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박성규 엘리지오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만으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기에...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9.8(토) 16:00

장소: 예수회관구본부

주제: 예수회원은 누구인가?

대상: 대학생, 35세 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7197-7400

예수성심시녀회 성소피정

기간: 9.15(토)~16(일)

대상: 미혼 남녀

회비: 1인 3만 원

문의: (010)9056-9005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9.8(토) 10:00, 다사성당

주제: 무명 순교자들의 모후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루르드 샘물 증정)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10.13(토), 11.10(토)

국악성가연구소 순교자성월 피정

일시: 9.8(토) 10:00~17:00

주제: 일상안에서의 순교의 삶

피정비: 2만 원

문의: 예수고난회, (070)8875-8827

힐데가르트 영성피정

기간: 9.15(토) 15:30~16(일) 16:3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6만원)

문의: 툇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313-3425 (선착순 60명)

성심수녀회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황혼의 삶: 9.8(토) 15:00~9(일)

2박 3일: 9.14(금) 17:30~16(일)

4박 5일: 10.15(월) 14:00~19(금)

8박 9일: 9.17(월) 14:00~25(화)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과정: 취미 교양, 취업 자격, 음악

취미 자격, 음악 개인 레슨,

학점은행제 (사회복지, 아동, 음악)

모집: ~9.7(금) 감삼동 · 반야월

문의: 660-5554~7, 개강: 9월부터

대구가톨릭대 수시 신입생 모집

교과부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

2014년 개교 100주년의 전통

입학 후 취업까지 책임

수시 2,009명 모집 (63개 학과)

접수: 9.5(수)~11(화), 문의: 850-2580

가톨릭상지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개강: 9.11(화) 학점은행제를 통한

사회복지, 보육 학위 및 자격증취득

문의: 1577-0361, www.cec.or.kr

실천교리교육 부산 특별 연수

기간: 10.22(월) 14:00~23(화) 13:00

장소: 부산 명상의 집 (숙박)

대상: 수도자, 교리교사, 관심 있는 분

문의: 노틀담실천교리교육연구소

(02)763-2274 / (010)8829-6292

로마서 통독 강의

기간: 9.8(토)~9(일)

장소: 가리따스 젊음의 집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문의: 예수이까리따스수녀회

(010)2568-5231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9월 3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9월 3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9월 3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꾸르실리스타 월례미사	9월 3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9월 3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9월 8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15년 경력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선나 010-6571-3385
라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강남피아노사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염가 판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야뇨증/성장장애 · 감기줄임
"먹기 좋은 달기맛 종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김 성 철(비오)
현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 (053)592-1275

BICHE
Organic Restaurant
1F 근거리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매장 비재
2F 유기농 레스토랑 비재 T. 744-2720
3F 몸과 문화 건강문화센터
4F 온열치유센터
T. (053)256-5493 www.bnc.or.kr
사) 몸과 문화 · 황금동 132-5 성김대진 성당 앞

39년 역사 양산/우산의 효자
세화양산
각종 기념품 및 답례품
대량 주문 및 소량주문 가능
가톨릭 신자 우대
대표 김 재 훈(스테파노)
☎ (053)956-1824 / 954-3712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야월 이마트내 2층·원장문세민 스테파노

"2대째 30년 전통"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644-4007, 558-3003
비산내거리 서부초 옆 류정실(마리아)

한티순교성지 도보순례 및 음악제

일시: 9.22(토) 9:30, 가산산성 집결
미사: 조환길 대주교님 주례
음악제: 한티피정의집 잔디공원
미사: 15:00 / 음악제: 16:00
문의: 교구평협, 250-3057

행사 | 모임

대구평화방송 개국 16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9.14(금) 19:30, 수성아트피아
출연: 인씨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최성수, 성악가-김은주, 이의춘, 나정신
예매: 티켓링크 / www.dgpbcc.co.kr
문의: 251-2610, 2621 / 전석 2만 원

뮤지컬 <울지마톤즈> 대구공연

기간: 9.14(금)~16(일) 3일간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신자특별할인: 30% (대구주보지참)
문의: 254-7241, 오페라하우스666-6000

교육 | 모집

시편성가연수(김정선 수녀)

발성법(박재연)

일시: 9.2(일) 15:00, 회비: 1만 원
문의: 가톨릭음악원, 255-4847

성가대를 위한 지휘아카데미 2기 모집

일시: 9.4(화) 19:00 (1학기 / 12주)
대상: 성가대 지휘자 및 단원, 일반

강사: 황해랑 (대구시향 전임지휘자)

문의: 프란치스코, (070)4266-0045

2012년 2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신학(교회사, 윤리신학1, 성사론, 철학,
기초신학), 전례(전례와 삶, 동양사상)
신약 / 구약성경과정, 신약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문의: 660-5105~6

가톨릭어버이성경학교 개학 및 심화반 추가 모집

개학: 9.3(월)부터 각 학년 요일
심화반 추가모집 (4학년 과정 이수자)
시간: 월 10:00~12:10 / 19:30~21:30
과정: 잠언, 지혜서
문의: (010)2889-3114

대전 어버이성경학교 개학·신입생모집

개학: 9.6(목) 14:00
시간: 매주 목요일 14:00~16:30
장소: 대전본당 교육관
대상: 기존의 학생, 신입생
문의: 김 알마 수녀, (010)2770-4627

이곡성당 청년 성서나누기반

개강: 9.5(수) 20:00
내용: 사도행전 (격주 수)
강의지도: 이재수 신부
문의: 김엘리사벳, (010)9372-6959

성요셉아버지학교 수료자 월례미사

일시: 9.11(화) 19:30
장소: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

새빛학교 기초 영어·한문반 모집

영어개강: 9.11(화) 13:00 (주 2회)
한문개강: 9.11(화) 15:00 (주 1회)
문의: 교무실, 476-3100 (교대역)

지성인을 위한 신앙특강

일시: 9.15(토) 10:00, 남산동대신학원
주제: 진리 안에 사랑 _ 사회교리
개요와 영성적 토대, 참가비: 5천 원
강사: 성염 (전 교황청 한국대사)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기간: 3차 9.23(일)출발 (8주,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여성부인정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9.18~12.18 (매주 화) 9:30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채용

복현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가능한 40대 남성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기소개서
마감: 9.15(토)까지
문의: 382-1004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혼수품 우대 · 이불 개조 · 기속사 이불
손누비전문 Angela 안젤라 침장
The bedding Gallery
월배 진천역 사거리 신한은행 맞은 편
T. (053)642-5191
김성길 (요 셸) 017-531-5191
박광희 (테레사) 017-532-5191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DACO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데스 호수소금
동성약국 현영희(아네스)
박준구(베드로)
T. 053-766-3815
010-3295-4476

한수위! **천년의미소 미술학원**
CHUN NYUN UI MISO ART INSTITUTE
중등부/고등부 입시전문
언제나 내지내치림 최선을 다해 가르칩니다
명덕점 431-5005 수성점 741-3506
원장 이 해 목 (도미니코)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 422-4423
김계남 (크리스티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